

식민통치의 저항의식 마비시키는 행락의 장소

창경원과 제국주의 권력의 식민지 통치전략

신주백 | 성균관대 사학과 BK21 연구교수



창경원은 일제에겐 조선인의 저항감을 마비시키는 행락의 장소, 조선인에게 근대성의 유익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공원은 19세기 유럽의 산업화과정에서 탄생한 도시의 장치다. 공원은 도시 하층민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출현했다기보다 중상류 계급이 이들을 계몽, 규범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휴식공간이었다. 통일국가를 지향하던 19세기 독일에서 공원이 가장 발달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일본에서는 산업화 과정 이전인 1873년 동경의 '시구개정'(市區改正)이란 도시계획이 수립되면서 '공원'이란 개념이 등장했다. 동경을 찾는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 가운데 하나인 우에노공원도 이때 만들어졌다. 서구를 둘러본 일본인들 대다수가 문화적 장치보다는 문명의 공간으로서 유럽의 공원에 더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 공원에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이 갖추어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충군의식 약화시켜 통치 효율성을 극대화하다 우에노공원처럼 세계의 기획된 공간이 창경궁에도 있었다. 1907년 11월 순

종황제는 거처를 덕수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겼다. 궁내부 소속의 고미야 사보마츠(小宮三保松) 등은 이 완용과 상의해 '황제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 창경궁 내에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애초 출발은 조선인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황실 전용의 유희공간으로 계획됐던 것이다. 그러다가 1909년 11월 순종의 지시에 따라 일반인의 지식개발과 오락을 위해 목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세 곳을 개방했다.

1911년 4월 조선총독부는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바꿨다. '궁'(宮)에서 '원'(苑), 곧 왕실이 사는 곳에서 모든 사람이 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변질된 창경원은 경건함 대신에 가벼움의 상징으로 격하됐다.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인들의 무의식 세계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충군의식을 약화시킴으로서 식민지 통치질서를 자기 중심으로 재편성하고 통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서구에서처럼 지배자의 문명적 우월성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필요성에서 '원'이 만들어진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자들도 서구의 제국주의자들처럼 이런 조치를 문명인의 의무, 사명감이라 주장했고, 통치의 정당성을 여기에서 찾았다.

조선총독부는 1912년부터 일본에서 벗어나기를 가져오고, 인도에서 뱀을 수입해 유희의 도시 장치로서 창경원을 꾸며갔다. 그리하여

동물원에서는 1922년에 30여종의 동물과 50여종의 조류를 사육하고, 식물원에서는 1천여종 1만여 그루의 식물을 재배했다.

식민지 근대화의 파행적 과정 보여줘 1924년부터는 6백여개의 전등을 달고 밤에도 개방해 창경원은 불야성을 이

뤼었다. 그래서 "사람 물결 가운데로 달려드는 자동차와 인력거가 함께 섞여 헤쳐나가지도 못할 만큼 복잡"한 광경이 자주 연출되곤 했다. 그만큼 당대 최고의 문명장치를 갖춘 창경원은 낭만이 있는 곳이었다. 과거의 신분의식과 위계질서가 강하게 남아 있는 조선의 현실에서, 이제 신분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대에 느끼는 정서를 일상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권위질서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허물어져가는 대신에 사회적 인간관계가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잡아갔다. 총독부 입장에서 창경원은 사회교화의 기능을 훌륭히 담당했다.

또한 창경원은 1909년 9월 어원사무국관제(御苑事務局官制)가 제정된 이래 고미야 등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그래서 조선인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 박물관에는 1912년 현재 1만 2천여점의 유물이 있었지만,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불상, 도자기 등을 전시하면서도 조선시대의 유물은 거의 전시하지 않았다. 이들은 유교의 폐해로 인해 조선왕조가 쇠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획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정체성론의 예술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조선총독부의 입장에서 창경원은 이민족의 지배에 대한 조선인의 저항감을 마비시키는 행락과 휴식의 장소였고, 제국의 위대함을 과시하며 통치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나가는 데 기여한 사회계몽 시설로서의 의미도 있었다. 조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창경원은 가공된 공간에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오락과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새로운 생활양식 내지는 근대성의 유익함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 ■

신주백 교수는 현재 성균관대 사학과 BK21 연구교수로 재직중이다. <1910년대 일제의 조선통치와 조선에 주둔한 일본군> 등의 논문을 발표했고,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1945)> <일본의 역사왜곡과 한국 사회의 대응(1960~2001)> <한반도의 외국군 주둔사(공저)> 등을 펴냈다.